



4면  
전주 어린이박물관  
3D 맵핑 기술 품고 '대변신'

#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1년 2월 8일 월요일 (음 12월 27일) 제2714호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대표전화 (063)288-9700

2023 전북 아·태 마스터스 상징물 확정

## 스포츠로 '자아 실현' 전세계인이 '하나로'

'하나된 스포츠 즐거운 어울림' 슬로건으로 선정  
마스코트는 까치 소재로 '아치와 태치' 등 형상화  
지난해 7~9월 전 국민 공모 통해 아이디어 발굴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 대회 상징물이 확정됐다. 대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아태 마스터스대회 슬로건과 심볼마크, 마스코트 개발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이번 상징물 개발은 대국민 공모와 선호도 조사 및 전문가 자문, 전문가 관 용역 등을 통해 대중에게 사랑받을 수 있고 국제대회의 격에 어울려야 한다는 점에 역점을 뒀다.

2023 전북 아태 마스터스대회의 확정된 상징물은 크게 4가지다.

우선 '슬로건'은 '하나된 스포츠! 즐거운 어울림!', 'Enjoy Sports! Play Life!'로 정했다.

이는 자발적인 스포츠 활동을 통해 경쟁보다는 자신의 인생 가치와 자아 실현을 이룸으로써 참된 화합과 즐거움을 추구한다는 철학을 담고 있다.

또한 '심볼마크'는 대회 영문 명칭 (Asia Pacific Masters Games) 첫 글자인 A, P, M, G를 의인화했다.

아태 마스터스대회가 생활체육 국제 종합대회인 만큼 생활체육의 역동성을 사람의 형태로 시각화했다. 두 손을 맞잡은 모습을 통해 대회가 추구하는 이념인 '나이·국적·성별 등에 관계없이 전세계인이 화합하고, 교류를 통해 하나가 되며, 진정한 친구를 만나 즐겁게 어울린다'는 뜻을 담았다.

특히 심볼마크에서 보여지는 부드러운 곡선모양은 한옥처마에서 영감을 얻은 것으로, 한국과 전북의 아름다움과 전통미를 부각시키고 있으며, 오방색 컬러(청색, 적색, 황색)에 녹색을 더해 친환경적인 이미지와 더불어 조화를 강조했다.

다음으로 '마스코트'는 전북의 도조

하나된 스포츠! 즐거운 어울림!  
ENJOY SPORTS! PLAY LIFE!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 대회의 슬로건(위), 심볼(가운데)과 마스코트인 아치와 태치(아래).

(道鳥)인 까치를 소재로 흰 까치와 검은 까치 두 마리로 형상화했다.

'까치'는 예로부터 반가운 사람이나 소식을 올 것을 알려주는 길조로 알려져 있는 만큼, 대회 참가자는 물론 전세계인에게 기쁜 소식과 희망을 가득 전해줄길 바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마스코트 이름은 '아치(Achi) & 태치(Taechi)'로 정했다. 이는 대회명칭(아시아·태평양)과 도조(道鳥)인 '까치'를 결합한 것으로, 지난 1월 27일~29일 실시한 대국민 온라인 선호도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포스터'는 슬로건, 심볼마크, 마스코트의 디자인 개념을 충실

히 따르되, 대회를 함축적이고 직관적으로 표현하는 데 중점을 뒀다.

메인(대표) 포스터 역시 대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결정됐다. 대표 경기종목을 그래픽 효과로 표현하고, 다채로운 컬러를 통해 대회 참가자들의 다양성을 나타냈다. 더불어 사진의 구도를 통해 속도감과 운동감을 더했다.

특히 대회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메인 포스터와 더불어 3가지 유형(체육경기 활용형, 심볼마크·마스코트 활용형, 마스코트 활용형)의 서브(보조) 포스터도 사용 장이나 홍보 목적에 맞게 사용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상징물에 대한 법적인 권리보호조치도 이뤄졌다.

조직위는 상징물 확정과 동시에 상징물에 대한 법적·배타적 권리설정과 상품판매권 확보를 위해 특허청에 상표출원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했다.

7월부터는 공식 상품화권자를 선정해 상징물을 활용한 본격적인 마케팅 사업을 전개하고, 공식후원사 모집을 진행하는 등 대회 운영재원 마련을 위한 수익사업도 활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이강오 사무총장은 "대회 심볼마크, 마스코트 등은 대회를 알리는 얼굴이며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홍보 수단이다"며, "아태 마스터스대회가 국제대회인 만큼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에게도 쉽게 와닿을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대회 홍보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는 한국에서 처음 열리는 생활체육 국제종합대회로, 당초 2022년 6월 개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2023년 5월로 1년 연기됐다.

2023 전북 아태 마스터스대회에는 26개 종목에서 70개국 2만8,000여 명의 선수단과 동반인이 참가할 예정이다. /참은성 기자

## 전주시 코로나19 대응, 세계가 '인정'

광저우 국제도시혁신상 심사위서 '우수사례'로

착한 임대운동 등 전주시의 코로나19 대응 정책이 세계적인 도시혁신사례로 꼽혔다.

전주시는 최근 온라인으로 열린 제5회 광저우 국제도시혁신상 심사위원회에서 전주시의 코로나19 대응 정책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인구 100만 이상 도시연합체인 세계도시연합(Metropolis)과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중국 광저우시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광저우 국

제도시혁신상'은 지역사회·경제·환경 분야 등의 성공혁신사례를 발굴·공유해 세계도시 간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격년제로 추진되고 있다.

올해의 경우 60개국 175개 도시의 273개 정책을 심사해 전주시 코로나19 대응 정책을 비롯한 프랑스 파리의 학교운동장 오아시스 프로젝트, 덴마크 코펜하겐의 빗물처리 정책 등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전주시의 코로나19 대응 정책의 경우 전주한옥마을에서 시작돼 전국으로 확산된 착한 임대운동과 전국 최초로 지급된 전주형 재난 기본소득, 외국어 안내서비스 및 유학생 생필품 구입배달 서비스 등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국제도시혁신상에서 우수사례로 인정받은 만큼 글로벌 관광거점도시 브랜드 가치가 높아져 추후 관광객 유치 등 파급효과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우리 농특산물을 먹고, 코로나19도 극복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와 도민을 위한 '코로나19 극복, 힘내자 전북도민!' 설맞이 농특산물 드라이브 스루 할인 판매행사가 지난 6일 전북도청 주차장에서 열린 가운데 송하진 도지사가 도민들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 냉장 보관 가능 백신 접종 위탁의료기관 이달 중 순차 지정

전북도, 아스트라제네카·안센 등... 631곳 참여 희망

전북도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위해 모더나, 화이자 등 초저온 보관이 필요한 15개소 예방접종센터와 아스트라제네카, 안센 등의 백신을 접종할 위탁의료기관 지정에 본격 나선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지난 1일 화이자(영하 75°C ±15)와 모더나(영하 20도) 등 초저온 유통이 필요한 mRNA백신 예방접종센터 최종 후보지 15개소를 선정한 바

있다. 이어, 지난 5일에는 냉장 상태(2~8°C)에서 보관이 가능한 아스트라제네카, 안센 등의 백신을 접종할 위탁의료기관 참여 희망 수요를 조사한 결과, 기존 국가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629개소, 신규 2개소 등 총 631개소에서 참여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정부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에 대해 도와 시·군 합동 현장점검과 코로나19 예

방접종 교육 이수 확인 등을 통해 선정기준에 부합한 경우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위탁의료기관은 2월 중 순차적으로 지정될 예정이며, 백신 공급량과 시기에 따라 다소 유동적일 수 있다.

지정된 위탁의료기관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안센 등 바이러스 전달체 백신을 접종하게 되는데, 백신은 전담 공급업체에서 냉장 상태(2~8°C)로 운반돼 접종 기관까지 안전하게 배송하게 된다. /유호성 기자

**GIMJE CITY**

경제도약, 정임로운 김제

지속 발전 가능한  
**새만금 중심도시**

**김제시**